

성별에 따른 자기애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 나 은

박 지 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성적 폭력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여기에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특히 자기애의 하위 요인별로 데이트 성폭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효과를 남녀를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미혼 성인 남녀 총 200명(여성 100명, 남성 100명)을 대상으로 자기애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매개하는지를 남녀 각각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남성의 경우 자기애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한 반면, 여성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구체적으로 자기애 하위 요인과 데이트 성폭력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즉, 남성의 경우 과시적이고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강했고,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강할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빈도가 높았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과시적이며 특권의식이 높고 자기충분성이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강했고,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강할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빈도가 높았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가 성별에 따라 다르다는 것과 함께, 자기애의 하위 요인별로 성차별의식과의 관계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데이트 폭력, 성적 폭력, 자기애, 양가적 성차별의식, 성차, 과시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0S1A6A3A03063902).

제1저자: 김나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석사과정

† 교신저자: 박지선, 숙명여자대학교 사회심리학과 교수,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길 100

최근 들어 데이트 폭력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6년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9,364건이었으나 2019년 19,940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경찰청, 2020). 특히 2019년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된 건수 중 약 반에 달하는 9,858건이 폭행이나 살인, 성폭력 등으로 형사입건되었다(경찰청, 2020). 그간 데이트 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였으나, 최근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데이트 폭력의 범죄 인식이 확산되었으며, 이에 피해자들의 범죄 피해 신고가 점차 활성화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성상 신고되지 않은 범죄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데이트 폭력 발생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데이트 폭력은 증가 추세에 있으나, 데이트 폭력 관련 법률 제정은 아직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데이트 폭력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가해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남귀숙, 이수진, 2020).

최근 데이트 폭력의 가해 요인 중 개인적 특성으로서 자기애에 관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성격적 특성으로서의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도 증가하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원선호, 배성만, 2020; Erdem & Sahin, 2017). 그런데 이때 성별에 따라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 폭력의 유형과의 관계에서 구별되는 양상이 드러났다. 즉, 남성은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중 신체적, 심리적 가해 경험이 많은 반면, 여성은 자기애 성향이 낮을수록 성적 폭력 가해 경험이 많았다(서경현, 김유정, 정

구철, 양승애, 김보연, 2010). 더불어 자기애의 하위 요인별로도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남성의 경우 우월성(superiority)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중 성폭력 가해 경험이 많았으나, 다른 하위 요인은 영향이 없었다(서경현 외, 2010). 따라서,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하고, 이때 자기애의 하위 요인별로 나누어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나 데이트 폭력의 유형 가운데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더욱 장기적이고 그 후유증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영오, 연성진, 주승희, 2015). 그러나 그간의 데이트 폭력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신체적 폭력에 집중해왔으므로(이재란, 정근선, 2020), 이에 데이트 폭력 중 성적 폭력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간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에 성차별의식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어 왔다(이정원, 김혜숙, 2012; 조은경, 박지선, 2020). 최근에는 성폭력 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에 있어서도 성차별적인 태도의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오주령, 박지선, 2019; Erdem & Sahin, 2017). 실제로 남녀 모두에게서 성차별적인 태도와 데이트 폭력 간에 유의한 상관을 보고한 연구도 존재한다(Quan & 임성문,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성적 폭력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여기에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미치는 영향을 남녀를 구분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자기애와 하위 요인 및 공격성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 제 5판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rd ed., DSM-V;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에 따르면 자기애는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되게 지각하며 자신을 매우 특별한 존재라고 여기고, 타인에게 특별대우나 복종을 바라는 특권의식을 지니는 성향을 일컫는다.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타인에 대해 낮은 공감 능력을 보이며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게 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Ackerman & Donnellan, 2013). 다차원적인 성격 특성으로서 자기애는 임상, 성격 및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성격 개념으로 연구되어 왔다(강선희, 정남운, 2002; Corry, Marritt, Mrug, & Pamp, 2008).

자기애를 측정하는 여러 도구 가운데 Raskin과 Hall(1979, 1981)이 DSM-III의 자기애적 성격장애 진단기준을 바탕으로 개발한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많이 사용되고 있다(정남운, 2001; Bushman, Bonacci, van Dijk, & Baumeister, 2003). NPI는 비임상집단을 대상으로 자기애의 개인적인 차이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어, 일반인들의 성격적인 측면에서 자기보고식 검사로 자기애를 평가하는 도구이다(정남운, 2001; Raskin & Hall, 1979). 일례로, NPI로 측정된 자기애가 높을수록 대학생 남녀 모두 공격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이은진, 김영윤, 김범준, 2010).

그간 학자들은 자기애와 폭력 사이의 관계를 밝히고자 노력하였다(Baumeister, Bushman, & Campbell, 2000).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일수록 모욕적인 평가를 들었을 때 나쁜 평가를 한 상대방에 대해 높은 공격성을 보였다(Bushman & Baumeister, 1998). 최근 자기애와 공격성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자기애는 공격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Kjaervik & Bushman, 2021). 자기애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웅대한 자기상을 지니는 특징이 있어 타인의 모욕이나 비판에 민감하기 때문에, 타인의 부정적인 평가에 쉽게 분노하며 이에 대한 보복으로 높은 공격성을 보인다(Bushman & Baumeister, 1998).

NPI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로 Kubarych, Deary, & Austin(2004)은 착취성, 권력 그리고 특권의식으로 구성된 2 요인 혹은 3요인 모델을 주장하였고, Emmons(1987)는 리더십/권위, 자기도취/자기찬미, 우월성/오만, 착취성/특권의식으로 구성된 4요인 모델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Raskin과 Terry(1988)는 이러한 주장은 NPI를 구성하는 하위 요인에 대해 너무 보수적인 견해라고 비판하며 7요인 모델을 주장하였다. 여러 하위 요인 모델들을 비교분석한 연구에서 Raskin과 Terry(1988)의 7요인 모델은 적합한 값을 얻었으며(Corry et al., 2008), 이는 권위, 자기충분성, 우월성, 과시, 착취성, 허영심, 특권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Raskin과 Terry(1988)에 따르면 권위는 타인에 대한 지배력과 리더십, 자기주장 및 자신감을 주요 특성으로 한다. 자기충분성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과 성취 욕구로 정의되며, 우월성은 본인이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본인에 대해 과도한 자부심을 드러내고 자아도취적인 모습을 보이는 특성이다. 과시는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는 것을 좋아하며 감각 추구, 외향성의 특징을 지닌 요인이다. 착취성은 타인을 본인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관용이 부족한 특성이다. 허영심은 자기 자신을 육체적으로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특성으로 정의된다.

마지막으로 특권의식은 야망 및 적대감, 자제력 부족 및 타인에 대한 관용 부족이 주요 특징인 요인이다.

그동안 NPI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자기에 성향에서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자기에 성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착취성과 특권의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였고, 우월성과 과사에서 비교적 적은 차이를 보였다(Grijalva, Newman, Tay, Donnellan, Harms, Robins, & Yan, 2015).

NPI는 자기에의 적응적인 측면과 부적응적인 측면을 모두 반영하는데(Reidy, Zeichner, Foster, & Martinez, 2008), 특히 하위 요인 중 권위는 적응적인 측면을, 특권의식과 착취성은 부적응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ckerman, Witt, Donnellan, Trzesniewski, Robins, & Kashy, 2011). 보다 구체적으로, 특권의식은 신경증이나 반사회적 행동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정남운, 2001), 반대로 자존감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Ackerman & Donnellan, 2013). 더불어 착취성도 공격성 등 심각한 심리적 부적응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이은진 외, 2010; Raskin & Novacek, 1989). 구체적으로 NPI 하위 요인 중 특권의식, 착취성, 과시가 높을수록 공격성도 높게 나타났으며, 그중 특권의식과 착취성은 공격성을 가장 잘 예측하는 요인이었다(Reidy et al., 2008). 이러한 특권의식과 착취성 두 요인을 중심으로, 신체적 폭력(Archer & Thanzami, 2009), 아동학대(Wiehe, 2003) 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자기에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 과장된 특권의식으로 성적 호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성적인 요구가 거절되었을

때 그에 대한 보복으로 폭력성을 보이며 성적으로 강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Bushman et al., 2003). 실제로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성적 폭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하위 요인 중 특권의식과 착취성은 성적 폭력을 예측하는 요인이었다(Zeigler-Hill, Enjaian, & Essa, 2013). 성적 요구가 거절된 상황에서 남성과 여성의 자기에 성향이 높을수록 성적 폭력을 저지를 위험이 더 높았다(Blinkhorn, Lyons, & Almond, 2015). 구체적으로 남성의 경우, 자기에의 하위 요인 중 권위와 과시가 높을수록 성적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더 높았고, 여성은 특권의식과 착취성이 높을수록 성적 폭력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Blinkhorn et al., 2015).

이처럼 성별에 따라 자기에와 폭력성을 비교한 연구에서는 하위 요인별로 성차가 나타났다. 우선 남성의 경우 과시 욕구가 높을수록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과시 욕구뿐만 아니라 권위, 특권의식, 착취성 등 NPI 모든 하위 요인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Blinkhorn, Lyons, & Almond, 201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에와 공격성에 관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과 자기에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하위 요인별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데이트 폭력과 자기에

데이트 폭력의 정의는 학자마다 상이하나, 통상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연인 사이, 즉 데이트 관계에 있는 두 사람 사이에서 합의되지

않은 채로 발생하는 폭력으로 정의된다(홍영오, 2017; Straus, 2004). 데이트 폭력의 유형으로는 그간 주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서경현 외, 2010; Shorey, Brasfield, Zapor, Febres, & Stuart, 2015).

그동안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연구가 다각도로 진행되었다. 사회적 요인으로서 주로 성역할 고정관념 혹은 성차별적 태도(강지영, 김성봉, 2021; Quan & 임성문, 2020)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가족적 요인으로는 부모의 양육 태도(양승애, 서경현, 2015), 가정폭력 노출(김수민, 이창배, 2021), 아동기 학대 경험(이승규, 최현정, 2021) 등이 연구되었다. 특히 개인적 요인으로서 자기애는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그동안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원선호, 배성만, 2020). 구체적으로 남성과 여성 모두 NPI 하위 요인 중 권위, 특권의식, 착취성 수준이 높을수록 친밀한 관계 내에서의 폭력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Blinkhorn et al., 2015). 또한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며(정오영, 장석진, 2021), 데이트 폭력 가해 경험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남귀숙, 이수진, 2020; 원선호, 배성만, 2020). 한편, 성차는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간 관계에서 주요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는데, 남성은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신체적 폭력 가해 경험이 많았고, 여성은 자기애 성향이 강할수록 성적 폭력 가해 경험이 많았다(Ryan, Weikel, & Sprechini, 2008).

최근 들어 특히 성폭력과 자기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Erdem & Sahin, 2017).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성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며 성관계에서 타인

을 지배하려는 동기가 높았고(박갑제, 임성문, 2013), 더 나아가 성폭력 가해 행동도 더 많이 하였다(박다원, 이인혜, 2015). 이때 자기애의 하위 요인에 따라 성적 폭력에 대한 영향에서 성차가 나타났는데, 남성은 NPI 하위 요인 중 과시가 높을수록 허용적인 성태도를 보이며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으로 이어졌다(박다원, 이인혜, 2016). 반면 여성은 특권의식과 착취성이 높을수록 성적 폭력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았다(Ryan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그 가운데서도 성적 폭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때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최근 연구들은 자기애가 폭력성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거나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두 변인 사이를 관계하는 다른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김시원, 박경, 2012; Baumeister et al., 2000). 예를 들어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사이의 관계에 있어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완전 매개 효과가 드러났고(남귀숙, 이수진, 2020), 인지적 공감의 조절효과도 밝혀진 바 있다(원선호, 배성만, 2020). 최근에는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가해 경험이 없는 사람에 비해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나는 등(Vitoria-Estruch, Romero-Martinez, Lila, & Moya-Albiol, 2018), 데이트 폭력에 있어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영향을 조사한 연구들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Quan & 임성문, 2020). 더불어, 남성의 성폭력 가해는 성적 지배가, 여성의 성폭력 가해는 성적 충동이 예측 요인으로 나타나는 등(Schatzel-Murphy, Harris, Knight, & Milburn, 2009) 성폭력 가해 예측 요인에서 나타나는 성차가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성별에 따른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사이의 관계에 있어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자기애, 데이트 폭력

Glick과 Fiske(1996)는 성차별적인 태도에 양가적인 감정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히며,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으로 구성된 이차원적 이론을 주장하였다.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여성을 교활한 존재로 여기며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차별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반면,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여성을 약한 존재로 인식하며 더 많은 배려를 받아야 한다고 여기는 태도를 의미한다(Glick & Fiske, 1996).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경우 여성에게 호의적인 태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성 고정관념적 여성상을 유지시키며 궁극적으로 성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보다 은밀한 성차별적인 태도이다(Glick & Fiske, 1996).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서윤정, 박지선, 2013; 홍영은, 박지선, 2018).

성차별적인 태도는 자기애의 종합적인 특성과 유사한 점이 많아, 두 변인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가 다수 존재한다(Erdem & Sahin, 2017). 자기애는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관련이 있으며, 이때 성별 간 차이가 있었다. 즉, 남성은 자기애가 강할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강하게 나타난 반면, 여성에게는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Navas, Maneiro, Cutrin, Gomez-Fraguela, & Sobral, 2020). 한편, 자기애의 하위 요인 중 특권의식에 있어 성차가 나타났다는데, 남성의 특권의식은 적대적 성차별의식을 예측한 반면, 여성의 특권의식은 온정

적 성차별의식을 예측하였다(Grubbs, Exline, & Twenge, 2014). 이처럼 자기애와 성차별의식과의 관계는 그 결과가 상당히 혼재되어 있어 성별 및 하위 요인별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성차별적인 태도와 데이트 폭력 간 연관성도 꾸준히 연구되어 왔는데, 성차별적인 태도를 지닐수록 데이트 폭력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였다(강지영, 김성봉, 2021; Forbes, Adams-Curtis, Pakalka, & White, 2006). 이러한 성차별의식과 사건에 대한 인식의 관계와 함께, 남성과 여성 모두의 성차별의식과 성적 폭력 가해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오고 있다(Russell, & Oswald, 2001). 특히 성차별적인 태도가 강할수록 데이트 폭력을 실제로 저지를 가능성이 더 컸다(서경현 외, 2010). 또한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강할수록 데이트 폭력의 하위 유형 가운데 성적 폭력을 더 많이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Lisco, Parrott, & Tharp, 2012).

성차를 보면, 남성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은 적게 나타났고,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이 더 많이 나타난 반면, 여성은 온정적,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이 더 많이 나타났다(Quan & 임성문, 2020). 한편,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더 많이 나타났으나,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이 남녀 모두에게서 더 적게 나타난 연구도 존재한다(Allen, Swan, & Raghavan, 2009). 이처럼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에 대한 결과가 혼재되어 있고, 성별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므로,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에 따라 조사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를 성적 폭력을 중심으로 알아보고, 여기에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특히 자기애의 하위 요인별로 데이트 폭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효과를 성별을 나누어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성격적 요인과 사회적 태도를 살펴보고, 데이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일조하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연구 주제의 특성상 연애 경험이 있는 사람에 한정하였으며, 연애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연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폭력 범죄자 연령대 분포에서 20대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선행 연구 결과를 토대로(홍영오 외, 2015), 본 연구는 20-30세 사이의 미혼 성인 남녀 총 200명(남성 100명,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문조사 업체를 통하여 해당 기준에 부합하면서 연구에 동의하는 사람에 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응답자들은 연구 참여에 대한 크레딧을 통해 보상을 받았다. 연구 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6.03세($SD = 2.85$)였으며, 여성의 평균 연령은 25.82세($SD = 2.73$), 남성의 평균 연령은 26.24세($SD =$

2.96)이었다.

측정도구

자기애

독립 변인인 자기애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Raskin과 Terry(1988)가 개발한 NPI(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척도를 한수정(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4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 참가자는 각각의 문항에 대해 두 가지의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한다. 하나는 자기애 성향이 높음을 나타내며(예: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이 나에게서 쉬운 일이다"), 다른 하나는 자기애 성향이 낮음을 나타낸다(예: "나는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 그것이 싫다"). 각각의 문항에 대해 높은 자기애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을 선택한 경우 1점을 부과하고, 낮은 자기애 성향을 나타내는 문항을 선택하면 0점을 부과한다. 총점은 0점에서 40점 사이에 나타나며, 총점이 높을수록 자기애 성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Raskin과 Terry(1988)에서 보고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3이었고, 한수정(1999)에서 보고한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5였다. 본 연구에서 NPI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851이었다. NPI의 총점과 함께, Raskin과 Terry(1988)가 제안한 7개의 하위 요인(권위, 자기충분성, 우월성, 과시, 착취성, 허영심, 특권의식)별로 각각 평균을 내어 분석에 활용하였다.

데이트 성폭력

종속 변인인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 Hamby, Boney-McCoy, & Sugarman(1996)이 개발한 갈등척락 척도 개정

판(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 2: CTS-2)을 바탕으로, 홍영오 외(2015)가 성희롱 문항을 추가한 척도를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문항은 총 10문항으로, 각각을 전혀 없다(1점)부터 매우 자주 있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68이었다. 총 10개의 문항은 다음과 같다(1.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얼굴, 팔, 다리 등 몸을 만진 적이 있다. 2. 상대방의 기분에 상관없이 키스를 한 적이 있다. 3.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애무를 한 적이 있다. 4. 상대방의 의사에 상관없이 가슴, 엉덩이 또는 성기를 만진 적이 있다. 5. 신체적 폭력을 쓰지는 않았으나,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다. 6. 성관계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잡거나 누르는 등의 완력을 사용한 적이 있다. 7. 성관계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때리거나, 상대를 다치게 할 수 있는 흉기를 사용한 적이 있다. 8. 성관계를 하기 위해 상대방을 위협한 적이 있다. 9. 상대방이 원하지 않거나 동의한 적 없는 성관계 동영상이나 나체 사진을 찍은 적이 있다. 10. 콘돔 없이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성관계하도록 요구한 적이 있다).

양가적 성차별의식

매개 변인인 양가적 성차별의식을 측정하기 위해 Glick과 Fiske(1996)의 양가적 성차별의식 이론을 바탕으로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김진실(2007)이 개발한 한국형 다면성차별의식검사(K-MSI)를 사용하였다. 이는 두 개의 하위 요인인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측정하는 총 24문항(각각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

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7점)까지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총점이 높을수록 성차별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56이었고,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내적 일치도(Cronbach's α)는 .922이었다.

분석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과 PROCESS macro 3.5 버전을 사용하였다. 우선 연구 참가자의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매개 분석에 앞서 주요 변인 간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남녀 각각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NPI와 각 하위 요인이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를 활용하였다. PROCESS MACRO model 4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사이 매개변인을 설정한 후,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에서 직접효과와 매개변인이 투입되었을 때의 간접효과를 살펴보고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방법이다(Hayes, 2017).

결 과

연구 참여자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

먼저 연구 참가자 성별에 따른 주요 변인 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 검정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분석 결과, 남녀 연구 참가자의 NPI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1. 성별에 따른 NPI 및 하위 요인, 양가적 성차별의식, 데이트 성폭력의 차이

척도	여성 M(SD)	남성 M(SD)	t	df	d
NPI	1.32(0.17)	1.41(0.18)	3.66***	198	-0.09
권위	1.34(0.23)	1.46(0.27)	3.56***	193.089	-0.12
자기충분성	1.26(0.23)	1.42(0.24)	4.84***	198	-0.16
우월성	1.41(0.27)	1.49(0.29)	1.96	198	-0.08
과시	1.24(0.21)	1.31(0.23)	2.39*	198	-0.07
착취성	1.30(0.25)	1.35(0.25)	1.54	198	-0.07
허영심	1.39(0.37)	1.41(0.31)	0.35	192.239	-0.02
특권의식	1.35(0.24)	1.41(0.24)	1.78	198	-0.06
적대적 성차별의식	1.90(1.17)	3.40(1.46)	7.98***	189.004	-1.5
온정적 성차별의식	2.47(1.15)	3.57(1.31)	6.33***	198	-1.1
데이트 성폭력	1.26(0.67)	1.61(0.99)	2.92**	173.168	-0.35

* $p < .05$, ** $p < .01$, *** $p < .001$

즉, 여성보다 남성의 자기애 성향이 더 높았다. 특히 NPI의 하위 요인 중 권위, 자기충분성, 과시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 남성이 더 권위적이고 과시적이며 자기충분성이 높았다. 나머지 우월성, 착취성, 허영심, 특권의식에서는 남녀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더불어,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온정적 성차별의식 모두 성별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각각의 성차별적 태도가 더 많이 나타났다. 데이트 성폭력에서도 성별 간 차이가 유의했는데, 여성보다 남성의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점수가 유의하게 더 높았다.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성별 각각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2, 표 3

참조). 참가자 나이는 남녀 모두에서 교체 기간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나머지 모든 변인과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교체 기간은 남성의 경우에는 다른 변인과 상관이 없었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NPI 하위 요인 중 우월성과 부적 상관이 있었고, 이 외 나머지 모든 변인과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NPI와 하위 요인 7개 사이에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착취성과 허영심 간 상관(여성)을 제외하고 하위 요인 간 정적 상관도 모두 유의하였다. 성차별의식(적대적, 온정적 각각)은 남녀 모두 데이트 성폭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우선 남성 연구 참가자의 경우, NPI 총점이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았다. NPI 하위 요인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기충분성이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점수가 높았고, 과시적일수록 적대적 성차별의식

표 2. 남성(N = 100)의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나이	1												
2. 교제 기간	.30**	1											
3. NPI	-0.05	0.09	1										
4. 권위	0.01	0.09	.86**	1									
5. 자기충분성	-0.01	0.03	.67**	.49**	1								
6. 우월성	-0.08	0.004	.71**	.63**	.33**	1							
7. 과시	-0.03	0.1	.77**	.61**	.32**	.49**	1						
8. 착취성	-0.06	0.11	.50**	.26**	.39**	.20*	.28**	1					
9. 허영심	-0.14	0.04	.50**	.35**	.22*	.29**	.42**	0.16	1				
10. 특권의식	-0.18	0.07	.68**	.51**	.42**	.36**	.47**	.22*	.20*	1			
11. 적대적 성차별의식	-0.04	-0.09	.20*	0.11	0.17	0.003	.20*	0.04	0.03	.37**	1		
12. 온정적 성차별의식	-0.1	-0.12	0.15	0.08	0.12	0.01	0.18	-0.01	0.15	.23*	.69**	1	
13. 데이트 성폭력	0.08	0.05	0.20	0.03	.23*	0.03	0.19	0.09	0.18	.26**	.40**	.43**	1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여성(N = 100)의 주요 변인 간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 나이	1												
2. 교제 기간	.25*	1											
3. NPI	0.09	-0.15	1										
4. 권위	0.13	-0.17	.80**	1									
5. 자기충분성	0.12	-0.17	.66**	.42**	1								
6. 우월성	0.08	-.22*	.72**	.54**	.50**	1							
7. 과시	-0.04	0.04	.68**	.46**	.26**	.35**	1						
8. 착취성	0.01	-0.15	.57**	.39**	.28**	.26*	.31**	1					
9. 허영심	-0.04	0.01	.53**	.27**	.21*	.30**	.46**	0.19	1				
10. 특권의식	0.12	-0.04	.68**	.48**	.40**	.38**	.34**	.29**	.23*	1			
11. 적대적 성차별의식	0.15	-0.01	.19	0.10	.24*	0.01	.20*	0.08	0.12	.17	1		
12. 온정적 성차별의식	0.18	-0.01	.30**	0.19	.22*	0.16	.31**	0.10	0.19	.23*	.82**	1	
13. 데이트 성폭력	0.04	-0.01	.21*	0.16	0.18	0.002	0.19	0.11	0.12	0.19	.74**	.62**	1

* $p < .05$, ** $p < .01$, *** $p < .001$

이 높았다. 또한 특권의식이 강할수록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모두 높았으며,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점수도 높았다.

여성 연구 참가자의 경우, NPI 총점이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강했으며,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점수도 높았다. NPI 하위 요인 중 자기충분성이 높고 과시적일수록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았다. 또한,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더 강했다.

NPI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 효과

NPI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남성의 경우 NPI와 데이트 성폭력 사이에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했다(표 4, 그림 1 참조). 즉, 남성은 NPI 총점이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더 강했고,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강할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점수가 더 높았다. 이때 매개변인인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투입되었을 때 NPI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완전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NPI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매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표 4. 남성의 NPI와 데이트 성폭력에서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i>LLCI</i>	<i>ULCI</i>
총효과				
NPI → 데이트 성폭력	1.1217	.5628	.0046	2.2389
직접효과				
NPI → 데이트 성폭력	.6745	.5355	-.3885	1.7376
간접효과				
NPI → 적대적 성차별의식 → 데이트 성폭력	.4472	.2559	.0146	1.0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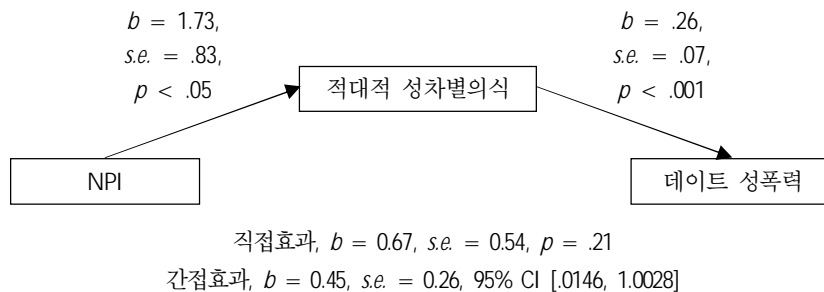


그림 1. 남성의 NPI와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

표 5. 여성의 NPI와 데이트 성폭력에서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i>LLCI</i>	<i>ULCI</i>
총효과				
NPI → 데이트 성폭력	.8419	.4124	.0233	1.6605
직접효과				
NPI → 데이트 성폭력	.1196	.3457	-.5666	.8058
간접효과				
NPI → 온정적 성차별의식 → 데이트 성폭력	.7223	.3228	.1828	1.43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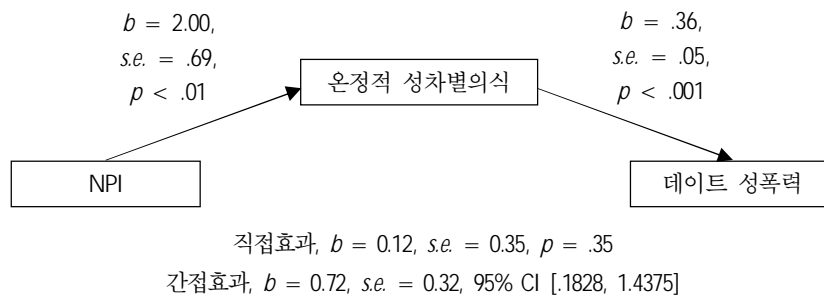


그림 2. 여성의 NPI와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

반면 여성의 경우 NPI와 데이트 성폭력에서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가 유의했다(표 5, 그림 2 참조). 즉, 여성은 NPI가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더 강했고,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강할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점수가 더 높았다. 이때 매개변인인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투입되었을 때 NPI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완전 매개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여성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의식은 NPI와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매개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NPI 하위 요인이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

향에서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 효과

이번에는 NPI 하위 요인을 독립 변인으로 설정하고 동일한 절차로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하위 요인 중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과 상관이 유의하였던 자기충분성(여성: 적대적, 온정적 모두), 과시(남성: 적대적, 여성: 적대적, 온정적 모두), 특권의식(남성: 적대적, 온정적 모두, 여성: 온정적)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각각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여성의 자기충분성과 데이트 성폭력의 관계를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각각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즉, 여성은 자기충분성이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의식($b = 1.12, s.e. = .51, p < .05$)과 온정

표 6. 여성의 자기충분성이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

경로(적대적 성차별의식)	<i>b</i>	<i>SE</i>	<i>LLCI</i>	<i>ULCI</i>
총효과				
자기충분성 → 데이트 성폭력	.5295	.2960	-.0580	1.1171
직접효과				
자기충분성 → 데이트 성폭력	.0520	.2076	-.3602	.4641
간접효과				
자기충분성 → 적대적 성차별의식 → 데이트 성폭력	.4776	.2450	.0811	1.0267
경로(온정적 성차별의식)				
총효과				
자기충분성 → 데이트 성폭력	.5295	.2960	-.0580	1.1171
직접효과				
자기충분성 → 데이트 성폭력	.1762	.2408	-.3019	.6543
간접효과				
자기충분성 → 온정적 성차별의식 → 데이트 성폭력	.3533	.2119	.0101	.8208

적 성차별의식($b = .98, s.e. = .50, p = .0527$)이 높았으며,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점수가 더 높았다(적대적: $b = .43, s.e. = .04, p < .001$; 온정적: $b = .36, s.e. = .05, p < .001$). 이때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매개변인으로 각각 투입되었을 때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자기충분성과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 사이에서 완전 매개 역할을 하였다.

또한 남성과 여성 모두 과시와 데이트 성폭력 사이를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완전 매개 하였다(표 7 참조). 즉, 과시적일수록 남성과($b = 1.33, s.e. = .64, p < .05$) 여성의($b = 1.19, s.e. = .56, p < .05$)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았으며,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점수가 더 높았다(남

성: $b = .26, s.e. = .06, p < .001$; 여성: $b = .42, s.e. = .04, p < .001$). 이때 매개변인으로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투입되었을 때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완전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의식 역시 과시와 데이트 성폭력 간의 관계에서 유의한 매개 효과를 보였다(표 7). 즉, 여성은 과시적일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았고($b = 1.75, s.e. = .53, p < .01$),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점수가 더 높았다($b = .37, s.e. = .05, p < .001$). 또한 과시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완전 매개 역할을 했다.

마지막으로 특권의식과 데이트 성폭력 사이에서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 효과는 남성과 여성이 각기 다른 양상을 보였다(표 8

표 7. 과시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i>LLCI</i>	<i>ULCI</i>
<남성>-적대적 성차별의식				
총효과				
과시 → 데이트 성폭력	.8170	.4341	-.0447	1.6788
직접효과				
과시 → 데이트 성폭력	.4727	.4126	-.3465	1.2919
간접효과				
과시 → 적대적 성차별의식 → 데이트 성폭력	.3444	.1865	.0369	.7629
<여성>-적대적 성차별의식				
총효과				
과시 → 데이트 성폭력	.6145	.3217	-.0241	1.2532
직접효과				
과시 → 데이트 성폭력	.1119	.2257	-.3361	.5599
간접효과				
과시 → 적대적 성차별의식 → 데이트 성폭력	.5026	.2814	.0255	1.1178
<여성>-온정적 성차별의식				
총효과				
과시 → 데이트 성폭력	.6145	.3217	-.0241	1.2532
직접효과				
과시 → 데이트 성폭력	-.0316	.2725	-.5725	.5093
간접효과				
과시 → 온정적 성차별의식 → 데이트 성폭력	.6461	.2688	.1953	1.2329

참조). 남성의 경우 특권의식이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반면, 여성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남성의 경우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았고($b = 2.41, s.e. = .59, p < .001$),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점수가 더 높았다($b = .24, s.e. =$

$.07, p < .001$). 이때 매개변인으로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투입되었을 때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특권의식과 데이트 성폭력 사이를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완전 매개하였다. 한편, 온정적 성차별의식은 완전 매개 효과가 없었다. 반면 여성의 경우 특권의식이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았으며 ($b = 1.02, s.e. = .48, p < .05$), 온정적 성차별

표 8. 특권의식과 데이트 성폭력에서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i>LLCI</i>	<i>ULCI</i>
<남성>				
총효과				
특권의식 → 데이트 성폭력	1.1994	.4169	.3718	2.0270
직접효과				
특권의식 → 데이트 성폭력	.6290	.4280	-.2207	1.4787
간접효과				
특권의식 → 적대적 성차별의식 → 데이트 성폭력	.5704	.1990	.2342	1.0037
<여성>				
총효과				
특권의식 → 데이트 성폭력	.5333	.2842	-.0308	1.0974
직접효과				
특권의식 → 데이트 성폭력	.1683	.2323	-.2930	.6296
간접효과				
특권의식 → 온정적 성차별의식 → 데이트 성폭력	.3650	.2038	.0363	.8205

의식이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점수가 더 높았고($b = .36, s.e. = .05, p < .001$), 특권의식이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투입되었을 때 간접효과의 신뢰구간에 0이 존재하지 않아 특권의식과 데이트 성폭력 사이를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완전 매개하였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성인 남녀의 자기애 성향과 데이트 성폭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자기애 하위 요인별로 데이트 성폭력과 양가적 성차별의식 간의 관계를 남

녀를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남성은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강한 반면, 여성은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강했다. 이는 자기애가 성차별의식과 관련이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를 확인하는 동시에(Erdem & Sahin, 2017; Grubbs et al., 2014), 성별에 따라 자기애와 관련 있는 성차별의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이때 주의할 점은 남성의 경우 자기애 성향이 높을수록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강했다는 국외 선행 연구(Navas et al., 2020)와는 상이한 결과이므로, 성별에 따른 자기애와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관계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남성과 여성 모두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과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 사이에 정적

상관이 있었다. 이는 양가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에 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일뿐만 아니라(Erdem & Sahin, 2017), 실제로 데이트 폭력 가해 행동도 더 많이 한다(서경현 외, 2010; Lisco et al., 2012)는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특이한 점은 남성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이 적게 나타났다는 선행 연구(Allen et al., 2009; Quan & 임성문, 2020)도 존재하므로, 향후 양가적 성차별의식과 성별, 데이트 폭력에 대해서 반복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자기애와 데이트 성폭력 간 관계에서 남성은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완전 매개 효과가 유의했던 반면, 여성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완전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완전 매개 효과는 자기애가 데이트 성폭력 발생에 있어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다는, 두 변인 사이 관계를 매개하는 다른 변인의 존재에 주목하는 최근 연구 경향과 맥을 같이 한다(김시원, 박경, 2012; Baumeister et al., 2000). 특히 데이트 폭력 중에서도 성적 폭력과 관련하여, 성차별적 태도가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드러내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남성은 전통적인 남성의 역할과 권위를 위협하는 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인 적대적 성차별의식이, 여성은 여성을 약한 존재로 인식하여 보호와 배려를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지각하는 온정적 성차별의식이 강할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 경험의 빈도가 높았다는 것은,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해 성별에 따라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성차별적 인식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자기애 하위 요인과 데이트 성폭력 간 관계에서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별에 따라 다른 양상이 나타났

다. 특히 자기충분성은 오로지 여성에 있어서만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타인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성과 성취 욕구가 특징인 자기충분성과 데이트 성폭력 간의 관계를 성차별의식이 매개한다는 본 결과는, 남성과는 다른 자기애 하위 요인이 성차별의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과 함께,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해 여성의 자기애 성향 중 자기충분성에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과시와 데이트 성폭력 사이에서 남녀 모두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고, 여성의 경우에는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 효과 또한 유의하였다. 이 결과는 타인에게 주목받는 것을 즐기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좋아하는 과시 욕구가 데이트 성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성차별적 인식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권의식과 데이트 성폭력 간의 관계에서 남성의 경우 적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 효과가 유의한 반면, 여성의 경우 온정적 성차별의식의 매개 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는 남성의 특권의식은 적대적 성차별의식을 예측하고 여성의 특권의식은 온정적 성차별의식을 예측한 선행 연구(Grubbs et al., 2014)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그간 자기애의 하위 요인 중에서도 공격성과 가장 관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 특권의식(Reidy et al., 2008)의 중요성에 대해 후속 연구를 통해 계속적으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런데 자기애와 폭력 사이의 관계를 매개하는 다른 요인으로 과거 공감, 인지적 정서조절전략, 분노 등이 주

요하게 다뤄진 바 있다(박다원, 이인혜, 2015; 원선호, 배성만, 2020; Wiehe, 2003). 특히, 자기애는 마키아벨리즘이나 정신병질(사이코패시) 등 다른 성격 특성보다 상관이 높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Navas et al., 2020). 따라서 향후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특성을 보다 면밀히 탐구하고 궁극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사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회적 태도나 성격 특성에 대한 연구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중에서도 성적 폭력을 중심으로 자기애가 미치는 영향과 양가적 성차별의식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은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등의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Shorey et al., 2015). 따라서 향후에는 자기애와 양가적 성차별의식의 관계가 데이트 성폭력 외에 신체적, 심리적 데이트 폭력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후속 연구를 통해 검증해 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만약 데이트 폭력의 유형에 따라 자기애 혹은 양가적 성차별의식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더불어 자기애의 하위 요인에 따라 신체적, 심리적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난다면, 이는 데이트 폭력의 유형에 따라 예방 전략을 차별적으로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강선희, & 정남운. (2002). 내현적 자기애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4), 969-990.
강지영, & 김성봉. (2021). 대학생의 성역할 고

정관념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성적자기주장의 매개효과. 교육과학연구, 23(1), 79-103.
경찰청. (2020). 2020 경찰백서. 서울: 경찰청.
김수민, & 이창배. (2021). 가정폭력 노출이 데이트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 폭력허용도의 매개효과와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한국경찰학회보, 86, 195-226.
김시원, & 박경. (2012). 청소년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폭력 가해와의 관계: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0), 121-141.
남귀숙, & 이수진. (2020).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와 데이트 폭력 가해와의 관계: 분노 표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7(1), 87-107.
박갑제, & 임성문. (2013). 자기애와 성폭력의 관계: 경로모형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19(1), 45-68
박다원, & 이인혜. (2015). 자기애와 성폭력 가해 행동의 관계: 특권분노/허용적 성태도의 매개효과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공감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21(3), 377-394.
박다원, & 이인혜. (2016). 자기애적 과시, 허용적 성태도, 경미한 성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 상태공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1), 153-172.
서경현, 김유정, 정구철, 양승애, & 김보연. (2010).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가부장/비대칭 패러다임과 성-포괄적 모델의 타당성 제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5(4), 781-799.
서윤정, 박지선 (2013).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 한국범죄학, 7(1), 33-59.
- 안상수, 백영주, 김인순, 김혜숙, & 김진실. (2007). 한국형 다면성별의식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양승애, & 서경현. (2015). 부모의 거부적 양육과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간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8), 407-427.
- 오주령, 박지선 (2019). 성별 및 양가적 성차별주의가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법, 10(1), 47-65.
- 원선호, & 배성만. (2020).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역기능적 분노의 매개역할과 인지적 공감의 매개된 조절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5(3), 549-567.
- 이승규, & 최현정. (2021). 아동기 학대 경험과 데이트 폭력 행위: 거부민감성과 냉담-무정서 특질의 매개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0(1), 1-11.
- 이은진, 김영윤, & 김범준. (2010). 대학생의 자기에 성향이 정신병질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5(3), 447-468.
- 이재란, & 정근선. (2020). 국내 데이트 폭력 가해 연구 동향 분석. 교정담론, 4(1), 211-241.
- 이정원, & 김혜숙. (2012). 강간사건 판단에 주변 단서들이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6(1), 47-73.
- 정남운. (2001). 자기애적 성격검사의 요인구조와 아이젠크 성격차원 및 자존감과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2), 221-237.
- 정오영, & 장석진. (2021). 미혼 성인남녀의 내현적 자기에 성향이 데이트폭력 허용도에 미치는 영향: 비합리적 관계신념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453-463.
- 조은경, 박지선 (2020). 강간과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 비난의 차이: 양가적 성차별 의식과 대인 폭력 허용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4(1), 45-66.
- 한수정. (1999). 자기애적 성격지향자의 외현적-내현적 자기관련 인지특성. 서울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영오. (2017). 성인의 데이트폭력 가해요인. 형사정책연구, 28(2), 321-353.
- 홍영오, 연성진, & 주승희. (2015).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홍영은, 박지선 (2018).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인식: 성별과 양가적 성차별주의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2(3), 1-18.
- Ackerman, R. A., & Donnellan, M. B. (2013). Evaluating self-report measures of narcissistic entitlement. *Journal of Psychopathology and Behavioral Assessment*, 35(4), 460-474.
- Ackerman, R. A., Witt, E. A., Donnellan, M. B., Trzesniewski, K. H., Robins, R. W., & Kashy, D. A. (2011). What does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really measure?. *Assessment*, 18(1), 67-87.
- Allen, C. T., Swan, S. C., & Raghavan, C. (2009). Gender symmetry, sexism, and intimate partner violenc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4(11), 1816-1834.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 P.,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5 (Vol. 1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 Archer, J., & Thanzami, V. (2009). The relation between mate value, entitlement, physical aggression, size and strength among a sample of young Indian men. *Evolution and Human Behavior, 30*(5), 315-321.
- Baumeister, R. F., Bushman, B. J., & Campbell, W. K. (2000). Self-esteem, narcissism, and aggression: Does violence result from low self-esteem or from threatened egotis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1), 26-29.
- Blinkhorn, V., Lyons, M., & Almond, L. (2015). The ultimate femme fatale? Narcissism predicts serious and aggressive sexually coercive behaviour in femal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7*, 219-223.
- Blinkhorn, V., Lyons, M., & Almond, L. (2019). Criminal minds: narcissism predicts offending behavior in a non-forensic sample. *Deviant Behavior, 40*(3), 353-360.
- Bushman, B. J., & Baumeister, R. F. (1998). Threatened egotism, narcissism, self-esteem, and direct and displaced aggression: Does self-love or self-hate lead to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1), 219.
- Bushman, B. J., Bonacci, A. M., van Dijk, M., & Baumeister, R. F. (2003). Narcissism, sexual refusal, and aggression: Testing a narcissistic reactance model of sexual coerc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5), 1027.
- Corry, N., Merritt, R. D., Mrug, S., & Pamp, B. (2008). The factor structure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0*(6), 593-600.
- Emmons, R. A. (1987). Narcissism: Theory and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1), 11.
- Erdem, A., & Sahin, R. (2017). Undergraduates' Attitudes toward Dating Violence: Its Relationship with Sexism and Narcissism.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6), 91-105.
- Forbes, G. B., Adams-Curtis, L. E., Pakalka, A. H., & White, K. B. (2006). Dating aggression, sexual coercion, and aggression-supporting attitudes among college men as a function of participation in aggressive high school sports. *Violence against women, 12*(5), 441-455.
- Glick, P., & Fiske, S. T. (1996). The ambivalent sexism inventory: Differentiating hostile and benevolent sex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3), 491.
- Grijalva, E., Newman, D. A., Tay, L., Donnellan, M. B., Harms, P. D., Robins, R. W., & Yan, T. (2015). Gender differences in narcissism: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1*(2), 261.
- Grubbs, J. B., Exline, J. J., & Twenge, J. M. (2014). Psychological entitlement and ambivalent sexism: Understanding the role of entitlement in predicting two forms of sexism. *Sex Roles, 70*(5-6), 209-220.
- Hayes, A. F.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 A regression-based approach. Guilford publications.
- Kjærvik, S. L., & Bushman, B. J. (2021). The link between narcissism and aggression: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 Kubarych, T. S., Deary, I. J., & Austin, E. J. (2004).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Factor structure in a non-clinical sampl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6*(4), 857-872.
- Lisco, C. G., Parrott, D. J., & Tharp, A. T. (2012). The role of heavy episodic drinking and hostile sexism in men's sexual aggression toward female intimate partners. *Addictive behaviors, 37*(11), 1264-1270.
- Navas, M. P., Maneiro, L., Cutrín, O., Gómez-Fraguela, J. A., & Sobral, J. (2020). Associations between dark triad and ambivalent sexism: Sex differences among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21), 7754.
- Quan S. & 임성문. (2020). 온정적 성차별주의와 데이트 폭력의 관계: 지각된 권력과 적대적 성차별주의의 조절효과. *사회과학연구, 37*(2), 179-216.
- Raskin, R. N., & Hall, C. S. (1979). A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reports, 45*, 590.
- Raskin, R., & Hall, C. S. (1981).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lternative form reliability and further evidence of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5*(2), 159-162.
- Raskin, R., & Novacek, J. (1989). An MMPI description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3*(1), 66-80.
- Raskin, R., & Terry, H. (1988). A principal components analysis of the Narcissistic Personality Inventory and further evidence of its construct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5), 890.
- Reidy, D. E., Zeichner, A., Foster, J. D., & Martinez, M. A. (2008). Effects of narcissistic entitlement and exploitativeness on human physical aggressio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44*(4), 865-875.
- Russell, B. L., & Oswald, D. L. (2001). Strategies and dispositional correlates of sexual coercion perpetrated by women: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Sex Roles, 45*(1), 103-115.
- Ryan, K. M., Weikel, K., & Sprechini, G. (2008). Gender differences in narcissism and courtship violence in dating couples. *Sex Roles, 58*(11-12), 802-813.
- Schatzel-Murphy, E. A., Harris, D. A., Knight, R. A., & Milburn, M. A. (2009). Sexual coercion in men and women: Similar behaviors, different predictors. *Archives of Sexual Behavior, 38*(6), 974-986.
- Shorey, R. C., Brasfield, H., Zapor, H., Febres, J., & Stuart, G. L. (2015). The relation between alcohol use and psychological, physical, and sexual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among male college students. *Violence against women, 21*(2), 151-164.
- Straus, M. A. (2004).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7), 790-811.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 (CTS2) development and preliminary psychometric data.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Vitoria-Estruch, S., Romero-Martínez, A., Lila, M., & Moya-Albiol, L. (2018). Differential cognitive profiles of intimate partner violence perpetrators based on alcohol consumption. *Alcohol, 70*, 61-71.
- Wiehe, V. R. (2003). Empathy and narcissism in a sample of child abuse perpetrators and a comparison sample of foster parents. *Child abuse & neglect, 27*(5), 541-555.
- Zeigler-Hill, V., Enjaian, B., & Essa, L. (2013). The role of narcissistic personality features in sexual agg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32*(2), 186-199.
- 1 차원고접수 : 2021. 10. 01.
심사통과접수 : 2021. 10. 29.
최종원고접수 : 2021. 11. 15.

The effect of narcissism on sexual dating violence by gender: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t of ambivalent sexism

Naeun Kim

Jisun Park

Department of Social Psychology,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study explored the association between narcissism and sexual dating violence, and how ambivalent sexism affects the relation. Additionally, this study investigated if there exists gender difference in the relations between factors of narcissism and sexual dating violenc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ambivalent sexism. Based on 200 participants(100 males and 100 females), the mediation effect of ambivalent sexism on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sexual dating violence was examined. For male participants, the mediation effect of hostile sexism on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sexual dating violence was significant, whereas for female participants the mediation effect of benevolent sexism on the relation between narcissism and sexual dating violence was significant. Different patterns were evident regarding the associations between factors of narcissism and sexual dating violence. For males, the more with exhibitionism and entitlement, the more with hostile sexism, and the more with sexual dating violence. For females, the more with exhibitionism, entitlement, and self-sufficiency, the more with benevolent sexism, and the more with sexual dating violence. The study revealed that the mediation effect of ambivalent sexism between narcissism and sexual dating violence differed by gender and by factors of narcissism. Finally, preventions measures for sexual dating violence were discussed.

Key words : dating violence, sexual violence, narcissism, ambivalent sexism, sex difference, exhibitionism